

도서관과 기부



글 | 송 치 욱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발전재단 기획위원
cusong@empas.com

“당신은 어디에 기부하고 있습니까?”

다소 생뚱맞은 질문이지만, 우리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답으로 드러난다. 예전에는 많이들 부정적으로 답했겠지만, 최근에는 선뜻 어디에 기부하고 있다거나 과거의 기부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직 기부문화가 자리 잡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해졌다고 말할 수는 있겠다.

그런 사회의 변화에 흐뭇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 크게 아쉬운 것은 도서관에 대한 기부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다. 도서관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고, 중앙이나 지방 정부가 도서관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기부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은 두 시기로 나누어야 한다. 전반부는 부를 획득하는 시기이고 후반부는 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시기이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수치이다”라는 기부와 관련된 많은 명언을 남긴 앤드류 카네기는 도서관에 막대한 기부를 하였고, 몇 년전에는 블랙스톤 그룹의 CEO인 스테픈 슈워츠먼(Stephen. A. Schwarzman)은 “도서관은 어린이부터 학자에 이르기까지 만인을 위한 자유로운 대학이다”라며 뉴욕공공도서관의 발전 위해 1억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굳이 여기서 유명한 빌게이츠를 다시 언급하지 않아도 되리라.

우리와 달리 외국에서는 도서관에 대한 기부 소식이 많은데, 이들의 기부를 통해 더 많은 곳에 도서관이 지어지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도 그들의 기부가 도서관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뉴욕주립도서관은 기부가 예산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서관에 대한 기부가 부족한 것을 두고 그들의 도서관이 발전한 역사가 우리와 다르고 기부문화의 수준도 차이가 많다고 이야기한다. 맞는 말이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의 기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도서관에 대한 기부도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될지는 의문이다. 그들의 성숙된 기부문화 속에는 기부의 필요성과 가치를 알리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도서관의 중요성을 깨달아 도서관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사회에서 도서관에 대한 기부의 가치를 알리는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는 “기부는 수표 한 장 써주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타인의 삶을 어루만지는 행위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말은 기부행위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 모금활동가의 말처럼 기부를 통해 모인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의미있는 돈’이며 ‘의미있는 삶’이 모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부를 권유하는 모금활동, 즉 펀드레이징(Fundraising)을 프렌드레이징(Friend-raising)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모금활동이 이루어지므로 이슈레이징(Issue-raising)이라고도 한다.

도서관의 입장에서 이 말들을 생각해보면, 도서관의 중요성과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바로 도서관에 대한 기부를 활성화하는 것, 즉 펀드레이징이고, 도서관을 사회적 의제로 만드는 것, 즉 이슈레이징인 것이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도서관의 발전이 우리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도서관이 우리사회의 가장 가치 있는 기관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가치가 제대로

확산되고 있는가이다. 이제 도서관계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라는 공공자원 뿐만 아니라 이 기부라는 민간자원을 개발하는데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추진해야 할 때다.

물론 기부를 강조한다고 해서 도서관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중앙과 지방의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는 것은 아니다. 이들로부터의 받는 예산을 충분히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본이다. 그리고 도서관으로서의 주어진 책임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도 도서관의 가치를 확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잊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다른 많은

분야들이 기부에 눈을 돌리고 있듯이 도서관계도 필요하다면 기부를 통해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필요한 곳에 도움이 있는 것이다.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한다.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도서관이 이러한 민간자원의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구성원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도서관 사업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공공재정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막아 자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기부를 통해 사회는 변화한다. 그리고 기부가 도서관을 바꿀 것이다. 이로 인해 기부한 돈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기부의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서관에 대한 참여로 이어져, 도서관이 말 그대로 사회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 번 물어보자. “당신은 도서관에 기부를 하십니까?”

기부가 도서관을 바꿀 것이다.

이로 인해 기부한 돈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기부의 과정을 통해 도서관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도서관에 대한 참여로 이어져, 도서관이 말 그대로 사회의 중심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